

기도

1.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2. 나에게도 시몬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신앙

## 데나리온

로마의 은화로써 무게는 약 3.8g이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돈으로,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나 군인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마 20:13). 그리스의 드라크마(drachma)와 거의 같은 가치를 지녔다.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디베료(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또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앉아 있는 평화의 여신 그림과 함께 '대제사장'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신약 시대 유대인들은 당시 통용되던 이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마 22:18-21).



# 구역 공과

2023년 11월 19일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

누가복음 7장 40-47절 (찬588장, 315장)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같이 식사를 나눌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36-38절). 이를 본 시몬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하며 여자와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39절). 예수님께서서는 시몬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자 죄를 탕감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40-43절).

시몬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저 죄인 된 여인이 자신의 발을 만지도록 허락한 예수님마저도 판단했습니다(39절).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시몬에게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지고 탕감 받은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40-42절). 이 비유는, 많은 죄를 짓고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적은 죄를 짓고 사함을 적게 받은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것의 양과 관계가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만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위함이고, 이들을 보살피고 위로하며 회개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의인이라 착각하며 여인과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을 때에 구속의 은혜로 그 죄를 탕감 받은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들이 이러한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 참 감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 두 번째로는, 사랑을 많이 받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44-47절).

시몬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에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합니다(롬5:20). 여인은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만나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았음을 깨달으면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이미 받았고, 매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참아 주신 것도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임을 깨닫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 맺 음 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모두 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를 탕감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많이 발견할수록 이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안식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